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

이 대 성

고양 백신고

I. 시작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 국가 질서와 헌법의 기초 원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양대 산맥이다.

현대 국가의 민주주의는 대부분 선거에 의한 대의제도에 의해 실현되며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 따라서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선 국가권력의 효과적 운용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권력은 부패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고, 아울러 국민은 국가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권영성, 2001: 688).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법이며 국가권력은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법치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법치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법치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보는 정치학자와 법학자의 관점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정치학자의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보다는 상위의 개념이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리로서 이해된다. 반면 법학자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동일 선상에 위치시키며 법치주의가 곧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유, 평등, 국민 주권의 원리가 입헌주의를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조건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최대권, 2012: 286-287).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는 이 둘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나의 문제이며, 이에 따라 대립적 관계와 보완적 관계로 대별해 볼 수 있다(김종철, 2006; 김철수, 2001; 강정인, 2008; 조홍식, 2008).

그동안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민주주의는 정치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고 민주주의 의미와 이념, 발전과정, 주요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 등의 내용이었다. 법치주의는 범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고 법치주의의 의미와 함께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대별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오랫동안 정치학, 법학 등에서 다루어 온 연구 주제였으며, 사회과 정치교육과 법교육에서도 필수 학습 요소로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왔다.

최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논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2011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을 둘러싼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논쟁이다. 개정 시안에서는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성장, 대중문화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확대를 설명한다.”였으나, 최종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한다.”로 수정되면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학계와 언론계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이념 대립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둘째, 지난 2004년의 대통령탄핵소추와 신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등 일련의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이어, 2008년과 2012년 미국 쇠고기수입반대 광화문 촛불집회를 놓고 벌어진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 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충돌문제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관계로서 작동하기도 하지만 실제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충돌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강정인, 2008). 따라서 교과서 상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다소 분절적으로 교육과정 상에 제시되었지만 2009 개정 사회과교육과정 상의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라는 성취기준에 새롭게 제시하면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 과정이 요구된다. 이것 역시 민주주의는 정치영역을 중심으로, 법치주의는 법영역을 중심으로 진술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흥미롭다.

넷째,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은 현대 민주국가의 주요 실천 과제 중 하나이며, 정치학이나 법학 서적 그리고 교과서 상에서도 바이블처럼 우리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 정부 역시 대표적인 공약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제시하면서 선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12년 1월 2일 세계일보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헌법·형사법 전공 교수 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해당하는 25명이 현 정부의 법치주의 수준에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표현의 자유 논란을 둘러싼 현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법치주의가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법으로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대비하여 교과서 상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어떻게 진술하고,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과서 상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와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민주주의 의미와 이념, 변천과정과 실천 원리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법치주의의 의미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의미와 사례에 대해 검토하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논란도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점과 상호 보완적인 관점으로 대별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 상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와

관계를 분석해 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교과서 서술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교과서 집필진과 현장 교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와 관계에 관한 논의

1. 민주주의의 의미와 원리

가.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통일한 개념 규정은 어렵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어원적으로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한다.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국민의 자치 능력을 긍정하면서도 그 어원에 충실한 민주주의에 대한 간결한 정의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민주주의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라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권력은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주권재민의 의미이며, 한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정치권력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²⁾

근대사회가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민주정치에 대한 장애요인들, 예를 들면 인구의 증가와 광활한 영토에 의한 비용과 시간의 문제에 의해 결정사항이 복잡해지는 원인으로 인해 권리를 지닌 사회 구성원이 한 장소에 모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고안된 민주주의 제도가 곧 대의제 민주주의이다(조현걸, 2000: 175-176). 하지만 대표자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요즘은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다시금 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민주주의의 개념에 관한 논의들이 있다. 허영(2003: 202-203)은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권력을 쟁취한 통치형태도 아니고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자기 지배의 통치형태도 아니며,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그 정치 내용이 임의로 결정되는 이른바 상대적 민주주의도 아니다. 현대적 의미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의해서 ‘자유, 평등, 정의, 국민주권’라는 인류사회의 기본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국민의 통치형태를 의미한다. 권영성(2003: 154-155)은 민주주의를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정치이념으로서 민주주의, 생활의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로 구분하였다. 현대사회의 민주주의는 정치형태의 민주주의, 정치 이념으로서 민주주의,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특히 생활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1) 민주주의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 혼합 민주주의와 평등 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방어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등이 그것이다(허영, 2003: 153).

2) 실제로 링컨은 이 셋 중에서 ‘국민에 의한’ 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 보았고,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치라 해도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면, 그것이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정치건 신생제국의 권위주의 정치건 간에 민주정치는 아닌 것이다. ‘국민에 의한 정치’라 함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국민 스스로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차기벽, 1980: 13).

나.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쟁취하려는 노력의 연속이었으며 이 노력이 바로 민주주의의 이념의 전개과정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시하고는 민주주의를 성립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사상은 봉건적 전제정치로부터 다름 아닌 '자유'를 되찾으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자유는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소극적 자유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나 구속, 타율적 강제를 받지 않는 상태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적극적 자유란 인간의 자율적 의지, 결정을 바탕으로 한 선택권의 행사 및 자기 의사의 발표 기회가 허용되는 상태로 국가에의 자유를 의미한다. 민주주의 이념에서 중요한 부분인 평등은 법 앞에서의 평등, 기회의 균등, 경제적 경쟁의 평등, 사회적 평등, 인격의 평등을 의미하며, 모든 인간이 동등한 지혜, 동등한 지위, 동등한 기술 등을 갖게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원래 능력의 차이가 있는 인간에게 모든 면의 평등과 무조건적 동등을 추구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다. 민주주의의 실현 원리

위에서 논의되었던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국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실현시키려는 통치형태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수단을 필요로 한다. 국민의 정치 참여방법에는 선거, 국민투표, 정당활동, 정치비판, 여론형성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치참여의 길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치주의, 국민투표 및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다수결원칙, 소수의 보호, 기본권보장, 권력분립제도, 사법권독립, 헌법재판제도,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은 모두 민주주의의 실현 원리에 속한다.

라.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관계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다른 점은 민주주의는 다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원리로,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합쳐진 것으로 개인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힘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즉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모두 시민의 권리, 시민에 의한 정치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민주주의는 개인의 평등에,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논쟁과 관련해서 다음 몇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³⁾

3)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발언으로 역사교과 개발정책위원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시대의 잔재이며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 헌법에서 신봉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뜻하는 것이 지 좁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국가이다'라고 하였다. 임혁백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할 일은 헌법에 명시된 정체와 주권 소재지를 제대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험해하게 개정해서는 안되며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로 고쳐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로 내세운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체제의 독재성을 은폐하기 위해 유신헌법에 처음으로 삽입한 내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발언으로 한국현대

우선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의 인식 차이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처럼 우리에게 명확한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일까, 아니면 아직은 정립이 덜 된, 현재 여러 관점에서 설명되는 소위 '언어맥락상 사용하는 표현'에 불과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정확하게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 자유민주주의에 사회민주주의가 들어가 있는가,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입헌주의에 기초하는 민주주의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형태라고 보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범주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과 같은 하위 개념이 존재한다고 보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쓰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의 구별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옛날 구소련과 대립하던 냉전시대에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념에 대립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또는 특정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칫 국가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다른 민주주의와 구별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써야 국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주장에 민주주의 주장자들은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것은 일당 독재체제 또는 장기 집권을 노리는 군부독재라고 지적한다. 사회민주주의와 공산권 국가들이 추구한다는 인민민주주의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도 차이가 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의 이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인가, 아니면 흐리게 하는 잘못된 선택인가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이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민주국가로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즉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국가인 것이다. 이런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추구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각인의 기회 균등을 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더불어서 모두가 화목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히 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유민주주의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규정할만한 단서가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곧 자유민주주의라고 본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개념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이념을 상징하게 한다면 오히려 국가 정체성을 더욱 흐릴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자유와 평등 중에 어느 가치에 더 강조점을 둘 것인가, 또한 자유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사학회 권영희 회장은 '공산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이며, 민주적 절차와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 말하였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가 한데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체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용어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식이다'라고 주장한다.

문제이다. 민주주의 주장자들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자유와 함께 평등도 중요한데 왜 자유만 내세우냐고 지적한다. 또한 그 자유는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자본주의를 연상케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의 개념 자체는 매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의미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의미하는 자유란 단순히 원하는 물건을 사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수준의 기본적인 자유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뜻한다고 본다.

끝으로 헌법 상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의미가 사용된 적은 있었지만 그동안 교육과정 교과서 상에서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표기되어 왔는데 왜 새삼스럽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지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는 점이다.

2 법치주의의 의미와 원리

가. 법치주의의 의미

법치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는 원리를 말한다(장영수, 1994: 138). 즉 '사람이나 덕 또는 힘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며 그것은 단순히 법을 수단으로 하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통치를 배제하는 법이라는 객관적인 제도에 따른 통치이다. 이는 법제정자, 법적용자, 법집행자 모두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된다는 것이다(최봉철, 2001: 77).

나. 법치주의의 내용

법치주의는 크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4)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지만 역사의 흐름으로 고찰해 본다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최대권, 2012: 258).

우선, 가장 단순한 의미로 누구나 법에 따르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되돌아 볼 때 법의 지배는 특히 정부가 '법 아래서' 그리고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법의 지배는 입헌정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폭정이나 자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통치자나 그 대리인들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헌법적 제한을 존중하면서 법적인 제약 하에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법치주의의 내용은 절차적 공정성이나 적절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법치주의는 개별적인 법체계 내에서의 법을 구성하고 있는 법규와 원리들의 충실한 적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개별적인 소송에서의 법적 의무는 판사의 임의적인 자유재량으로 판결되어서는 안되고 현행법의 분석에 입각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법치주의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통설적 견해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로 나누고 있다. 법치주의를 순전히 형식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모든 국가는 법질서를 가지고 있

4) 흔히 법치주의의 개념의 대립으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거론된다. 이는 대략 법의 제정에 관련하여 논의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form)을 갖춘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이며, 실질적 법치주의는 실질(substance)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이다(김도균 외, 2006: 76).

고, 실정법을 준수하기만하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의 정당성을 떠난 형식적 사고는 법치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법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조장할 수 있다(김철수, 2001: 191). 따라서 법치주의의 '법'은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정당성을 갖춘 법이어야 하며, 행정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본권 존중과 헌법 및 법과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원리

법치주의는 우리가 자주독립국가로서 민주공화국 헌법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 거기에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모든 법원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는 법치주의의 원칙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의 원칙, 위헌법률심사제도, 국가행위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이 해당된다. 우리 나라 헌법상의 법치주의의 원리는 아직 민주헌정의 역사가 짧아 술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원리는 국가생활에 있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므로 확고부동한 통치원리로 정착되어나가야 할 것이다.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함께 통용되고 있지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법치 국가이면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경우도 있고, 민주주의 사회이면서도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엘리트가 지배하는 귀족적 정치체제 혹은 전체적 정치 체제에 있더라도 합리적인 지배자를 만난다면 법의 지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⁵⁾ 민주주의를 다수의 지배 원리로 이해하고 법치주의를 실체적 법치주의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이 양자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그리고 법치주의를 사법권의 독립 및 위헌법률심사제도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에 충돌이란 있을 수 없다(최대권, 2012: 122-123).

또한 민주주의를 '다수의 견해 = 정당성'이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법치주의는 다수의 견해에 포함되지 못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개방성과 능동성을 갖춘 적극적인 개념⁶⁾으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상호보완관계로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립관계로 파악하는 관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여기는 관점이다.

가. 대립 관계로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대립 관계로서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상호 충돌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비정치적 기술적 원리인 법치주의와 다수의 의해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 받은

5)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정치적 요소로 법치주의를 규범적 요소로만 파악하여 둘 사이의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지, 대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양자의 개념을 분리한다고 해서 두 가지 자체를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6)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 민주주의란, 단순히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내지 수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존재들이 그들의 자유와 평등과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이며 질서이다.

민주주의는 대립적 관계로 파악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정치적 요소로 법치주의를 사회 규범적 요소로 이해한다고도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만 파악했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예로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여겨지는 의원들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 입법을 했지만, 재산권의 보장이나 법치주의의 요소인 과잉 금지 원칙의 위반이라는 형식적 이유로 위헌 선언 되어 무효화되어 온 것을 들 수 있다(김종철, 2006: 16).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고 혹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서로 떨어뜨리면 충돌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일 나치가 바이마르공화국을 무너뜨릴 때, 불안정한 정부와 양극화된 의회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는 한쪽에 제쳐놓고 극우 인사들로만 구성된 사법부로 법적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아예 파괴해 버렸다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설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적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아예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대립 관계로 보는 관점에는 또 다른 접근법도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법치주의와의 관계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개념은 일원적 민주주의관(monistic view of democracy)과 이원적 민주주의관(dualist view of democracy)을 말한다(강정인, 2008). 일원적 민주주의관은 곧 선거에서 승리하여 다수의 지지를 획득한 대통령이나 국회의 다수당은 다음 선거까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을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채택하거나 제정할 수 있으며, 선거에서의 승자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는 반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이원적 민주주의관은 주권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 다수파나 대통령의 결정이 바로 다수의 지배로 승인되지 않으며, 국정의 중요한 현안이나 사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위헌 법령 심사,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다수의 지지나 사법부의 검토에 의해 사법적 확인을 받을 것이 요청된다(강정인, 2008: 57).

나. 상호 보완 관계로서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상호 보완 관계라는 관점에서는, 먼저 두 가지가 각각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서로 부족한 면을 보완해 준다는 것을 전제한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거나 혹은 법치주의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식의 우열의 차원이 아니라, 두 가지가 모두 부족한 점이 있고 서로 각자의 문제점을 치유해 나간다는 상보적인 차원인 것이다. 즉, 현대 국가가 국민 주권 및 자유와 정의 등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로 이해하는 이상, 그 실현을 위해서는 그러한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치주의와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볼 수 없으며, 반대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로운 정치 질서를 의미하는 민주주의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증명된다. 먼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동일한 가치 징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는 국민주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이념적 징표로 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이들을 보장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둘째, 법치주의의 절차와 형식은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전제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는 상호 간의 연관성을 지닌 채,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최고 이념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 작동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대립 관계'의 시각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은 대

표성을 가지는 대통령과 국회(민주주의)의 법률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법치주의)가 위헌 판결을 하여 이를 묵살시키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상호 보완 관계의 관점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있으며, 헌법 재판소(법치주의)가 대통령과 국회(민주주의)를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Ⅲ.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와 관계에 대한 교과서 분석

1. 분석 대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의 관련 단위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2009 개정 교육과정 상의 관련 단위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초·중·고 교과서 중에서 각 1개씩만을 선정하여 관련 단위 내용을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단원을, 중학교 사회교과서 중에서는 1학년의 '우리의 생활과 법', '인권보호와 헌법' 단원을, 3학년의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단원을,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중에서는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단원을,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육과정 내용 중에서 '민주정치와 법', '우리나라의 헌법' 단원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을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교육과정과 교과서⁷⁾

학교급	학년	자료 형태	단위	비고
초	6	교육과정, 교과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교육과학기술부
중	1	교육과정, 교과서	우리의 생활과 법, 인권보호와 헌법	금성출판사
중	3	교육과정, 교과서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민주정치와 시민 참여	금성출판사
고	1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금성출판사
고	2-3	교육과정, 교과서	민주정치와 법, 우리나라의 헌법	천재교육

2 분석 기준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선 나름대로의 분석 기준이 필요하다. 분석 기준 설정을 위해 우선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실천 원리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법치주의의 의미와 유형,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특히 고등학

7)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2종 검인정에 따라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가 있지만 여러 출판사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금성출판사 1종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초등학교는 1종 도서로서 1권만 있고, 고등학교 2-3학년 교과서는 2종 검인정인데 1개 출판사에서만 출원되었다.

교 '법과 정치'과목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성취기준이 제시된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용 분석 시에는 관련 개념과 용어, 문장 진술, 탐구활동과 읽기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와 관계에 대한 내용이 학교급별로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도 살펴봄으로써 관련 단위 내용 간의 계열성도 검토할 수 있었다.

앞 장에서 논의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세한 분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실천 원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에 대한 분석이다. 학교급별로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실천 원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의 개념과 원리가 학교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념적인 논쟁의 양상이 교과서 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상세한 세부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가?
- 민주주의 개념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다수의 지배, 국민 자치, 정치형태/정치이념/생활원리)
- 민주주의의 이념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천 원리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언급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는가?

둘째, 법치주의의 의미와 유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에 대한 분석이다. 학교급별로 법치주의의 의미,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법치주의의 개념과 유형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법치주의 관련 개념의 위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상세한 세부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법치주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가?
-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가?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가?
-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조건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셋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에 대한 분석이다. 학교급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한눈에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 즉 대립적 관계와 보완적 관계가 학교급별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법과 정치'과목의 관련 내용 진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상세한 세부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가?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대립적 관계, 보완적 관계)
- 우리나라의 경우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3. 분석 결과 및 논의

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련 교육과정 내용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 상 학교급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 2> 와 같다.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 상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련 내용⁸⁾

학교급	학년	단원	내용 요소
초등학교	6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민주주의와 참여 ◦ 헌법의 핵심 내용, 우리 일상생활과 법 ◦ 국민의 권리, 인권 존중 태도 ◦ 관용, 대화, 타협, 절차 준수 등 민주주의 실천 태도
중학교	1	우리생활과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의미와 기능 ◦ 사법 제도와 그 원리
		인권보호와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식의 성장과 헌법의 관계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보호 수단
	3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정치의 역사적 전개 과정 ◦ 민주주의의 이념과 현대 민주 정치의 원리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문제 해결 과정과 정치 참여 주체의 역할 ◦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
고등학교	1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보장의 의미와 법의 역할 ◦ 우리 헌법의 기본권 보장 원리와 기본권 제한 한계 ◦ 개인의 권익 침해 행위와 법적 구제 수단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권력 구조와 기능의 민주주의 맥락 ◦ 정치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참여 방법과 자세
	2-3	민주정치와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정치의 이념과 유형 ◦ 민주정치의 발전과정 ◦ 법치주의의 의미와 민주정치와의 관계
		우리나라의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급별로 법과 정치영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교육과정 내용 요소나 성취기준에 제시되고 있으나 법치주의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생활 속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의 법제도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거나 민주정치와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나 입헌주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민주주의와 민주정치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초·중학교에는 제시되지 않다가 고등학교 ‘법과 정치’과목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나. 민주주의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실제 초·중·고 교과서 상 민주주의의 개념과 원리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진술되어 있

8) 2009 개정교육과정은 수차례 변화를 가져왔다. 2009년 3월 6일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에서는 고등학교 ‘사회’와 ‘법과 사회’, ‘정치’과목이 존재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를 통해 ‘사회’과목은 없어지고, ‘법과 사회’와 ‘정치’는 ‘법과 정치’라는 과목으로 통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현재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가 분석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 과목과 고등학교 ‘법과 정치’과목은 제2009-41호 고시 자료를, 고등학교 ‘사회’과목은 제2009-10호 고시 자료를 검토하였다.

능가를 분석하였다. 크게 민주주의 개념과 제시 방식, 민주주의 이념과 실천 원리, 자유민주주의 개념 사용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설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과서 상의 본문 내용이나 활동, 읽기 자료 등에 포함된 민주주의의 개념과 원리를 분석해서 정리해 보았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 <표 4>, <표 5>, <표 6> 과 같다.

우선 민주주의 개념 사용과 제시 방식에 대한 분석이다.

<표 3> 교과서 상의 민주주의 개념과 제시 방식

학교급	학년	단원	민주주의 개념 사용과 제시 방식
초등학교	6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개념이 제시되었음 - 민주주의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정치 방식 -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고 제시 - 일상생활 속의 민주주의 의미를 설명
중학교	1	우리생활과 법	- 민주주의 개념이 제시되지 않음
		인권보호와 헌법	- 민주주의 개념이 제시되지 않음
	3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개념이 제시되었음 - 민주주의란 다수의 민주에 의한 지배, 한 사회의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 - 민주주의를 정치형태를 넘어 생활양식으로 의미 확대 - 민주주의 개념을 민주정치와 혼용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개념이 간접적으로 제시되었음 - 민주주의 의미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필요성 설명
고등학교	1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 민주주의 개념이 제시되지 않음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개념이 간접적으로 제시되었음. -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인용하여 민주주의 설명 - 활동자료(내가 그려 본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 의미 탐색), 읽기자료(최선의 선택, 민주주의) 형식으로 민주주의 개념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음
	2-3	민주정치와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개념이 본문과 탐구활동으로 제시됨 - 정치형태, 이념,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으로 폭넓게 제시 - 탐구활동(민주주의의 의미)을 통해 제시된 자료의 민주주의가 지니는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 민주주의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함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개념이 간접적으로 제시되었음 -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강조 - 민주주의 개념을 민주정치와 혼용
		우리나라의 헌법	- 민주주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음

〈표 3〉을 통해서 보면 학교급별로 민주주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영역보다는 정치영역에서 주로 민주주의 개념을 다루고 있었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정치형태와 생활양식의 민주주의 개념으로 심화되고 있었고, 활동자료와 읽기자료 등을 통한 제시 방식의 다양화도 확인되었다. 또한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민주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개념과 민주정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면서 다소 혼란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실천 원리에 대한 분석이다.

〈표 4〉 교과서 상의 민주주의 이념과 실천원리

학교급	학년	단원	민주주의 이념과 실천 원리
초등학교	6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음.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본문 진술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음. - 민주주의의 실천 원리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이 없음.
		우리생활과 법	- 민주주의의 이념과 실천원리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음
중학교	1	인권보호와 헌법	-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으나 인간의 존엄성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입헌주의에 대한 언급이 있음.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이념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상세하게 본문과 활동자료로 제시됨. - 민주정치의 원리로 국민주권의 원리, 입헌주의와 권력분립이 제시됨. - 활동자료(헌법 속에 담긴 민주주의 원리)에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독일 수권법을 통해 민주주의 원리를 직접 찾아보도록 하고 있음.
	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으나 시민의 권리로서 자유와 평등을 제시하고 있음. - 자유와 평등 간의 충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으나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제시함. - 현대 민주 국가에서의 법치주의 원칙과 목적 제시
고등학교	1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간략하게 언급됨. - 입헌주의, 권력분립제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음.
		민주정치와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이념을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구분하여 설명 - 민주주의 실천원리로 국민주권의 원리,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제시하고 상세하게 설명함.
	2-3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음. - 정부 형태에서 권력분립의 원리, 선거에서 다수결의 원리 등이 간접적으로 언급됨.
		우리나라의 헌법	-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으나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제시함

		- 입헌주의 원리와 함께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등이 간접적으로 언급됨.
--	--	--

〈표 4〉를 통해서 보면 학교급별로 민주주의 이념을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정치영역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소개하고 있으나 법영역에서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등이 언급되고 있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자유와 평등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만 서술되어 있었다. 현실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충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 민주주의의 실천원리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입헌주의, 권력분립, 국민주권주의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진행되었다.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사용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분석이다.

〈표 5〉 교과서 상의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사용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설정

학교급	학년	단원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설정
초등학교	6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설명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았으나 헌법의 기본원리를 소개할 때 간단히 언급됨. - 탐구활동에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을 민주주의 발전 과정으로 소개하고 있음.
중학교	1	우리생활과 법	-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 제시되지 않음
		인권보호와 헌법	-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소개할 때 간단히 언급됨.
	3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 제시되지 않음. - 민주정치의 변천과정을 역사적 상황과 설명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 제시되지 않음
고등학교	1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 제시되지 않음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 제시되지 않음
	2-3	민주정치와 법	-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사용 -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설명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 - 민주주의의 개념의 하위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제시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 제시되지 않음
		우리나라의 헌법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제시하고이와 관련된 헌법 조문과 상세한 설명 제시

〈표 5〉를 통해서 보면 고등학교 ‘법과 정치’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법영역에서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사용할 뿐 국내외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주의 발전 과정으로 설명하지 이것을 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이라고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법과 정치’과목에서 민주주의의 하위 요소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구분하여 설명을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의 관계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가 같은 의미로 볼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다. 법치주의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실제 초·중·고 교과서 상 법치주의의 개념과 원리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크게 법치주의 개념과 제시 방식,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구분과 설명 방식,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요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과서 상의 본문 내용이나 활동, 읽기 자료 등에 포함된 법치주의의 개념과 원리를 분석해서 정리해 보았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 〈표 7〉, 〈표 8〉과 같다.

우선 법치주의 개념 사용과 제시 방식에 대한 분석이다.

〈표 6〉 교과서 상의 법치주의 개념과 제시 방식

학교급	학년	단원	법치주의 개념 사용과 제시 방식
초등학교	6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주의 개념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일상생활 속의 법과 헌법의 역할을 통해 법치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음. - 법과 헌법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함.
중학교	1	우리생활과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주의 개념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일상생활 속의 법과 헌법의 역할을 통해 법치주의 의미만을 설명하고 있음.
		인권보호와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헌주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 - 헌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함.
	3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정치의 원리로서 입헌주의 제시 - 근대 시민혁명과 입헌주의를 연계해서 설명함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주의 개념은 사용하고 있지 않음 - 민주 정치 과정에서의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경우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고등학교	1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주의 개념이 등장하며 법을 통한 국민의 인권 보장에 초점 - 분쟁의 합법적 해결, 활동(우리나라 국민의 법의식 수준은) 등에서 간접적으로 법치주의 설명하고 있음.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주의 개념을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관련해 제시 - 민주주의 실현 원리로서 입헌주의 제시하고 설명 - 정치 발전을 위한 합법적인 정치 참여 방법을 통해 법치주의를 간접적으로 설명

2-3	민주정치와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의 원리로서 입헌주의 제시하고 설명함(입헌주의와 법치주의 관계 설명) - 법치주의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동서 고금의 법치사상 소개)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참여 방법의 합법성을 다룰 때 간접적으로 법치주의를 설명하고 있음 - 법치주의를 예치주의와 덕치주의와 비교해서 설명
	우리나라의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헌주의 제시하고 설명함 -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법치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표 6〉을 통해서 보면 법치주의 개념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때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주로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때에는 법과 헌법의 원리와 연계하여 법치주의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에서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로 정치영역보다는 법영역에서 법치주의 개념이 다루어지고 있었고,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치주의 개념이 워낙 폭넓은 개념이다보니 입헌주의, 준법 등과의 명확한 개념 구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분과 설명 방식에 대한 분석이다.

〈표 7〉 교과서 상의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분과 설명 방식

학교급	학년	단원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분과 설명 방식
초등학교	6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중학교	1	우리생활과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 일상생활 속의 법과 헌법의 역할을 통해 법치주의 의미만을 설명하고 있음(양측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인권보호와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 헌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함(양측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3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고등학교	1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 분쟁의 합법적 해결, 국민의 법의식 등에서 간접적으로 법치주의 설명하고 있으나 양측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2-3	민주정치와 법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설명함

		- 히틀러의 만행과 수권법 제시를 통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설명함
	민주청지의 과정과 참여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우리나라의 헌법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 저항권 개념과 사례를 제시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미를 일부 생각하게 함

〈표 7〉을 통해서 보면 고등학교 ‘법과 정치’의 일부 단원에서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구분과 설명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히틀러의 수권법이나 유신헌법 등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예시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요건에 대한 분석이다.

〈표 8〉 교과서 상의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요건

학교급	학년	단원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요건
초등학교	6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요건에 대한 언급이 없음
중학교	1	우리생활과 법	-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요건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사법 과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영장주의, 미란다원칙, 구속적부심사제, 무죄추정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간략하게 소개함
		인권보호와 헌법	-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요건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간략하게 소개함
	3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권력분립제도가 소개됨,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에 대한 언급 없음
고등학교	1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언급과 확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죄형법정주의, 입법청원,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행정심판 등을 소개하고 있음.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권력분립제도가 소개됨,
	2-3	민주정치와 법	-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로 위헌법률심사제도 소개
		민주청지의 과정과 참여	-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권력분립제도가 소개됨,
		우리나라의 헌법	-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언급과 확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청원, 행정심판, 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법률구조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음.

〈표 8〉을 통해서 보면 고등학교 ‘법과 정치’과목의 일부 단원에서만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요건으로 위헌법률심판이나 권력분립제도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죄형법정주의, 헌법소원심판 등의 기본권 침해 구제 방법 등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었다.

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에 관한 교과서 내용 분석

실제 초·중·고 교과서 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크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들 간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와 보완적 관계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법치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9〉과 같다.

〈표 9〉 교과서 상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

학교급	학년	단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
초등학교	6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고 진술하고 있음.
중학교	1	우리생활과 법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음.
		인권보호와 헌법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음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 언급이 있고,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과정에서 유신헌법 등을 소개함.
	3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정치의 필수 제도로 입헌주의를 제시하고 있음. - 민주 정치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면서 입헌주의의 확립을 통해 민주 정치의 기틀 마련이라는 내용 제시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음
고등학교	1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현대 민주국가는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법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장과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내용 언급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근대 민주주의 발전과 입헌주의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음.
	2-3	민주정치와 법	-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 - 법치주의에 따라 민주정치가 성장하는 동시에 민주정치에 의해 법치주의가 실현

	민주청지의 과정과 참여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음
	우리나라의 헌법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4.19혁명, 6월 민주화 운동, 유신헌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려고 함. -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헌주의)의 보완적 관계를 제시하려고 함

〈표 8〉을 통해서 보면 고등학교 ‘법과 정치’의 일부 단원에서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거나 또는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법치주의원리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자유민주주의원리를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언급하고 있었다. 다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가 대립적 관계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사건들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좀 더 깊이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V. 맺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오랫동안 정치학, 법학뿐만 아니라 법과 정치교육의 주요한 연구 주제였다. 최근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이념 논쟁과 함께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둘러싼 충돌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고등학교 ‘법과 정치’과목의 일부 단원에서 새롭게 성취기준으로 도입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 설정 문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문제를 개별적인 차원에서만 검토했지 이 둘의 관계를 대립적이거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과서 상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와 원리 및 상호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 대별하여 검토하였고,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제기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교과서 상에 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급별로 민주주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정치형태와 생활양식의 민주주의 개념 확대와 자료 제시 방식의 다양화 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개념과 민주정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면서 다소 혼란을 주고 있었다.

둘째, 학교급별로 민주주의 이념을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유와 평등 간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만 서술되어 있었다. 민주주의의 실천원리 역시 중고등학교에서 입헌주의, 권력분립, 국민주권주의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진행되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에서만 사용되고 있었을 뿐 대부분 민주주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다.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자유와 평등의 관계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개념과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

넷째, 법치주의 개념은 고등학교에 와서야 교과서 상에 등장하였고, 초등학교에서는 법과 헌법의 원리와 연계하여 법치주의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다만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폭넓은 개념이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의 일부 단원에서만 위헌법률심판이나 권력분립제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끝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는 고등학교 '법과 정치'의 일부 단원에서만 명확히 제시되고 있었다. 다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가 대립적 관계보다는 대부분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교과서 상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련 본문 내용과 활동 및 읽기 자료에 나와 있는 진술에 의존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만 교과서 집필진과 현장 교사들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련 내용의 교과서 진술 양상과 계열성 문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 설정 논의 및 자료 제공 등의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해 보면 본 연구를 기초로 후속연구가 지속될 것 기대한다. 후속 연구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련 개념과 원리, 관계에 대한 계열성 연구와 관련 개념의 학습자 이해도 조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사례 개발 등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구성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정인(2008).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충돌. 「법학연구」, 49(3), pp.40-7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사회과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2012). 초등 6-2 사회 교과서.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
- 권영성(2003).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도균 외(2006).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왕근 외(2012).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천재교육.
- 김종철(2006).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공법의 시각에서. 한양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 김철수(2001). 헌법학개론. 박영사.
- 서태열 외(2012). 중학교 사회 1, 3학년 교과서. 금성출판사.
- _____ (2011). 고등학교 사회 1학년 교과서. 금성출판사.
- 이극찬(2010). 정치학. 법문사.

- 장영수(1994).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안암법학」, 2, pp.133-180.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교육과정.
- 정태욱(2008).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한계에 대한 안 시론: 미국의 노예제 폐지의 헌정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49(3), pp.127-158.
- 조홍식(2008).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물경시정치-비례 입헌주의를 주창하며. 「법학연구」, 49(3), pp.97-12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현걸(2000). 전자민주주의의 몇가지 쟁점과 새로운 환경설정. 을유문화사.
- 차기백(1980). 민주주의의 이념과 역사. 한길사.
- 최대권(2012).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봉철(2001). 한국의 법문화와 법치주의의 과제. 「법학연구」, 11(1), pp.75-9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하재홍 역(2007). 법의 정신. 동서문화사.
- 허 영(2003). 헌법 이론과 헌법. 박영사.